

# 불교복지 발전하려면 종단부터 변화해야

###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세미나 전문가들 종단참여와 인식 변화 주문

“천태종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 차원의 관심과 복지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천태복지 학술 세미나’에서 복지 전문가들이 천태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천태종복지재단의 12년간 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 AK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직부대행 무원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의회의장 도산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안산 스님을 비롯한 신도와 후원자,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학술세미나에서 박종팔 청운대 교수는 ‘불교계 복지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천태종 복지 발전을 법인과 복지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태종 승려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법인 예산 확대 수입 및 지출 구조개선 직영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958개이고 이 가운데 진각종이 4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천태종은 15개 시설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인 현행 구조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시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천태종은 복지법인도 불교계 전체의 직영시설 43.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2.3%에 그치고 있다.

박 교수는 천태종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서비스 확충, 60세 이상의 천태종 신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 복지주택 활성화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도 박종팔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천태종 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월도 스님은 ‘천태종 복지재단의 사업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스님은 “천태종 대중화 및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사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범종단 차원의 복지사업이 추진돼야 진일보한 종단의 면모를 갖추 수 있다”며 복지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도 스님은 천태 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운영 전략, 종단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식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천태종 내에서도 아직까지 포교와 복지의 상관성을 인식하지



천태종복지재단이 ‘천태복지 세미나’를 통해 천태종복지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못하고 있어 복지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도 스님은 “복지사업을 실행차원의 복지 불사로 인식하고, 추진력을 가진 승려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인적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종립대인 금강대 졸업생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안산 스님은 ‘상월원각대

조사의 사상과 중생구제행’에 대해 기초강연했다.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는 구도와 포교, 중생구제행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대조사의 이런 원력을 실현하는 길은 복지다. 천태종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천태종 가치와 원칙을 사회 복지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비구니 권리, 시대에 뒤쳐져 있다

### 크리스티 창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장 방한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가 10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장 크리스티 창(Christie Chang) 박사(사진)를 초청해 ‘사카디타와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여성리더십 모델’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사카디타’는 국제 여성불자들의 모임으로 1987년 2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불교의 전통으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과 달리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한 서양에서 점차 불교가 알려지면서 서양의 여성 불자들이 비구니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전통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다”며 “이번 계기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여성 불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카디

타’가 설립되게 됐다”고 말했다.

사카디타는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 평화 증진 >전 세계 여성 불자의 의사교환 조직망 구축 >다양한 불교 전통에 대해 화합과 이해 설립 및 지원 증진 >여성불자 교육 장려 >여성이 연구하고 수행하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비구니 승단 설립 등을 취지로 활동 중이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2500년 동안 불교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점차 묻히고 잊혀져왔다. 따라서 학자들이 모범적인 여성 불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불교 안에는 좋은 가치가 굉장하다.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교계에는 앞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여성 불자들의 리더십을 창출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교계에는 불교의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라며 “현재 사카디타를 국제연합(UN)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제연합이 가진 다양한 자료들을 여성 불자들에게 연결해 주고 여성 불자들의 목소리가 세계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여성 불자들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평등한 구조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조선시대 불교 자기정화로 살아 남아

### 금장태 서울대 교수 불교미래사회포럼 강연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10월 25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열린 제33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우리사회 불교의 특성과 역사성에 대해 강조했다. 금 교수는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금 교수는 삼교 융합을 설명하며 포용과 소통을 지향하는 불교의 특성을 설명했다.

금 교수는 “유교의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감응하여 생각한다’와 불교의 ‘고요하며 비추고 비추면서 항상 고요하다’, 도교의 ‘하는 일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삼교의 정신이 놀라울 정도로 묘묘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교가 종교의 교조적 특성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당시 다른 이념들을 모두 배척했던 유교에 비해 성숙한 종교의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장태 교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불교가 자기 정화 노력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역사를 살펴보면 대중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웅장한 교단 건립에만 집중하면 사치다”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삼교가 중세 가톨릭에 저항해 발생한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불교는 조선 시대에도 자기 정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논산 군법당 기금 전달 잇따라

###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 대원상 상금 등 기부

논산훈련소 군법당 상량식이 11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승가의 군법당 발전 기금 전달이 잇따랐다.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이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논산 군법당 건립 지원 기금 2000만원을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올해 실시된 제9회 대원상 포교부문 승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사 주지로서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로터스 월드를 통한 다양한 국제구호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관 스님은 당

시 수여된 상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동행에 전달했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원 스님도 같은 날 논산 군법당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군 포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에는 수덕사 경선암 현일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법당 발전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교육불사 1000만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1000만원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 장애인전법단, 템플스테이 개최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열렸다.

4월 30일 출법한 장애인전법단(단장 지거)은 10월 24~26일 제주도 약천사(주지 성원)에서 28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제주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5대 결사 가운데 하나인 나눔결사의 일환으로 평소 혼자서 사찰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108염주 만들기 연등만들기 탐

돌이 올레길 걷기 제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했다.

장애인전법단 단장 지거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해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늘려가겠다. 또 사찰과 기관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봉은사, 사회복지사업 시동

서울 봉은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진화, 봉은사 주지)이 11월 14일 오후 3시 강남구립 대치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한다.

복지법인 봉은이 위탁 운영하는 첫 시설인 대치노인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745.4㎡ 규모로,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

어센터(주야간보호) 및 ‘노인요양센터(24시간 케어)’가 동시에 운영된다.

법인 대표 진화 스님은 “이번 위탁사업을 시작으로 봉은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인재원, 전심법요 강좌 개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2월 20일 매일 셋째 주 화요일 황벽선사어록 <전심법요> 강좌를 개설한다.

<전심법요>는 조사선 대중장이며 조계종 중지의 상징인 임제 스님의 스승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승상 배후가 엮여 전하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이번 강좌는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이 강사로 나서며, 12월 20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포럼장에서 진행된다. (02)735-2428

박기범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http://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아파트 특보 복지원

개요 :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아래의 기업과,재단,사단법인은 사업 이윤을 사부대중과 사회에 기부하여 자리아타를 실천한다.

주제 : 1.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주택(아파트)을 저가로 제공한다.  
2. 노스님들과 노인대중을 위해 복지후생을 실천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평당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750세대)을 서민에게저가로 공급한다(평당600만원선)

**2. 사업 계획 : 서방정토극락세계구현**  
토지 3000평 허가득 봉황산골짜락 서남향 노스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원을 건립한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보재단(가칭)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보산업개발주식회사**  
**문의처 : (031)941-0000 / 010-7677-7556**